

DJ 이후 최대인파... 지지층 결집·대선승리 발판 마련

이재명 광주·전남 순회 나흘째
전 지역 돌며 바닥민심 훑어
“호남 없인 민주주의·개혁 없어”
5·18유공자 빈소·전통시장 방문
부인과 동행...윤석열과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나흘간 이어진 광주·전남 순회 일정은 그동안 미지근했던 호남 민심에 '이재명 바람'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호남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에 반성을 하며 몸을 최대한 낮췄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민주당이 거듭날 것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에 다시 한번 구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에서 90% 가까운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이 후보는 나흘 간 전남 11개 시·군 모든 국회의원 지역구를 한 곳도 빠짐없이 들르는 강행군 속에서도 바닥 민심을 잡는데 시간을 할애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차별화를 두는데 역점을 뒀다. 농민과 어민, 직장인 캠퍼스, 5·18 유공자, 청년, 시장 상인들을 중점적으로 만나면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점도 바닥 민심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 철저한 반성 속 호남 민심 구애** 이 후보는 호남 방문 기간 동안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 속에 개혁과 혁신이 이뤄져야만 호남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철저하게 민생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했는데 부족했다”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직 개혁 부진으로 정책실효를 얻지 못했다”고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정책 실패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기득권 전부를

내려놓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완전히 변화된 민주당과 혁신된 민주당으로 다시 호남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5·18유공자 빈소, 전통시장 방문** 바닷바람 민심 훑으며 ‘차별화’ 이 후보는 광주·전남 방문 일정 내 한껏 몸을 낮추며 바닥 민심을 잡는데 주력했다. 표밭같이 과정보다 이번 대선의 맞수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직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했고, 광주 전남 지역민은 수백~수천명씩 몰려들어 대통령 이재명을 연호하며 화답했다. 순천 등 도심 걷기 행사에 부인 김혜경씨가 동행한 것을 두고도 “야당 후보와 차별화된다”는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이 후보는 첫 일정을 25일 5·18 유공자 이광영(68)씨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 한 장례식장 조문으로 4박 5일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역사와 진실의 법정은 시효가 없다”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7일 오전 찾은 장흥 토요시장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직격하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시장 한복판에서 진행된 즉석 연설을 통해 국정 관리에 대한 경험도 실력도 부족하더라도 무속인과의 관계까지 있는 이른바 ‘3무 후보’라며 날을 세운 것이다. 그는 “국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이상한 스승님 찾다니면서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습니까”라며 “대통령을 뽑을 땐 자신과 같은 실력과 실천력, 실적을 봐야 한다”고 했다.

◇**목포·장흥·광주순정 전통시장, 순천·여수 도심 등 구름인파** 이 후보는 가는 곳마다 몸을 낮추고 경청했다. 신안에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섬에 산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는 어촌, 섬주민 발언에 개성을 약속했고, 강진에선 농민 간담회를 열었다. 농민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농촌이 소멸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연 60만원을 가구당 지급하는 것은 농민들이 하는 공익적 역할에 비하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농민수당, 농촌수당의 구체적인 목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기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28일 오후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재명 후보와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대선 승리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문기간 내내 이 후보가 등장한 곳은 인파로 넘쳐났다. 장흥 토요시장, 목포 동부시장, 순천 연향동 파션의 거리 등이 후보가 가는 곳마다 수백~수천명의 지지자가 몰려들었다. 지난 27일에는 장흥과 순천 등 방문지에서 잇따라 생일 축하곡을 선사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바쁜 일정 때문에 오늘이 제 생일인지도 몰랐다”며 감사를 표시한 뒤 “여기 있는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호남민심 미운 자식 잘되라고 야당 당도 저도 변하면 다시 지지해줄 것”

이재명 광주 기자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당도 변하고 저도 변하면 결국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심정으로 우리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야끼고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호남 민심을 묻는 질문에 “호남 민심의 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미운 자식 잘 되라고 야당 치는 느낌”이라면서 “그런데 야당을 치면 수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얼마나 잘되라고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정치는 결과로 책임을 지는 데, 그 측면에서 민주당이 겸허하지 못했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민주당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성찰하고, 깊이 반성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더 빠르고 민감하게, 치열하게 노력해 국민들 기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남 그랜드공약과 관련해 “의대 유치와 광주 의료원 설립 문제 등 보건의료 확충 문제도 해결 과제지만, 가장 큰 사업을 꼽으려면 호

남을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로 만들어 산업발전의 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탄소감축을 위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에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결국 그 중심지가 호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서남해안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산업발전을 이뤘다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개헌은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하고 국론분열과 국력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인지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개혁세력 대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파렴치법과 부패사범처럼 함께 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입장의 작은 차이 때문에 분열 같았던 점들은 통합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도 동의하는 바이고, 그 일환으로 열린민주당 통합도 실제 협의 진행 중이다”면서 “다만, 절차적 문제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이 논의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두가 합류할 기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이재명, 범여권 통합 제시...민주 떠난 지역정치인들 복당 이뤄지나

“민주진영이면 과거 안 따지겠다”
지방선거 앞두고 갈등 소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범여권 통합 문제와 관련해, “민주개혁 진영의 일원이라면 과거에 어떤 일 있었는지 따지거나 가리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에 따라 과거 지역 민심의 반문(반 문제인) 정서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했던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복당이 상당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전직 국회의원들이야 아직 총선이 남아있고 대부분 정계 은퇴 수순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일부 탈당 인사들은 내

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탈당에 따른 경선 잠점 문제는 핫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전직 국회의원들의 경우, 전정배·장병완·주승용 전 의원 등은 복당이 점쳐진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전 의원 등은 민주당에 복당할 경우, 이재명 선대위 발탁이나 측면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소속의 이용주 전 의원도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나온다. 반면, 박주선·김동철·송기석 전 의원 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황이라서 복당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또 다른 전직 의원들은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한 상황이라서 민주당 복당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기조 아래, 범여권 통합 논의에 따른 전직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과거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이나 민생당 등에 몸을 담았던 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복당이 현실화 될 경우, 경선 잠점 문제 등이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범여권 통합에 있어 민주당 차원의 확고한 원칙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무늬만 통합’이라는 논란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범	목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 전공)			
총 계		93	29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형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2. 1. 10(월)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